



윤경신 감독은 현역시절 세계 최고의 핸드볼 선수였고 지도자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8일 꿈나무교실을 위해 찾은 삼척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꼭 맞는 커리큘럼을 직접 연구해 열성적으로 레슨을 진행했다(왼쪽사진). '꿈나무 교실'을 마친 뒤 학생들과 활짝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윤경신 감독(오른쪽 사진 가운데).

“윤경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국가대표가 될수 있나요?”

레전드 초청 강원랜드 스포츠 꿈나무 교실...삼척초에 온 '핸드볼의 신' 윤경신

“신나게 운동하고 잘 먹으면 키가 크다”
윤감독 눈높이 레슨에 아이들 질문 쇄도
대표팀 출신 박찬영은 'GK 훈련법' 전수
훈련 뒤엔 선물 나눠주며 기념사진 촬영

두산 핸드볼팀 윤경신(44) 감독은 7일과 8일, 1박2일에 걸쳐 강원도 태백과 삼척에서 꿈나무 초등학교생들과 만났다.

윤 감독은 '레전드 초청 강원랜드 스포츠 꿈나무 교실'(주최 스포츠동아·동아일보·채널A·동아닷컴, 후원 강원랜드) 재능기부 제안에 흔쾌히 눈길을 마다하지 않고 강원도로 향했다. 7일 장성초등학교에서 장성초, 황지초 선수들과 함께 탐 힐리머 레슨을 진행했다. 8일 태백에서 삼척으로 가는 길은 햇빛이 닿지 않은 응달 대부분이 방판이었다. 윤 감독은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출발을 앞당겼다.

삼척초등학교 체육관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전국적으로 핸드볼 명문 초등학교로 꼽히는 삼척초 학생들은 한 눈에 봐도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들을 찾아온 핸드볼 최고의 레전드 윤 감독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초등학교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지하게 훈련했고 열성적으로 코트에 몸을 던졌다.

“삼척초는 1982년에 창단돼 역사가 깊고 매우 훌륭한 지도자분들의 가르침 속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명문 팀이다. 직접 만나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힌 윤 감독은 각 포지션별로 꼭 필요한 다양한 기술 훈련을 집중 지도했다. 직접 핸드볼 공에 정성스럽게 이름을 새긴 사인볼, 자신의 현역 시절 유니폼을 선물로 챙겨온 그가 가장 열심히 한 학생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순간, 코트는 영하의 날씨를 잊은 듯 열기가 뜨거웠다.

윤 감독은 이번 꿈나무 교실에 8년 이상 국가

대표 수문장으로 활약한 골키퍼 박찬영(두산) 선수와 동행했다. 윤 감독은 “골키퍼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해 대회를 마치고 휴식중인 박찬영 선수에게 부탁을 했다. 팀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선수다. 흔쾌히 함께해 고맙다”며 웃었다. 꿈나무들은 골키퍼에게 필요한 다양한 훈련법을 배우며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삼척초는 명문 팀이지만 다른 많은 학교처럼 골키퍼 전문 지도자는 없다. 삼척초 코치들도 골대에 함께 서서 박찬영 선수의 훈련법을 열심히 메모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찬영 선수는 “최근에는 전문 골키퍼 코치를 영입하는 팀이 늘어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고 말했다. “공에 대한 두려움을 더 지우면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따뜻한 격려 속에 진행된 골키퍼 훈련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됐다.

윤 감독은 직접 골키퍼 준비한 기술, 체력 훈련에 이어 미니 게임을 진행했고 학생 선수들과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윤 감독은 현역시절 분데스리가 8차례 득점

왕, 통산 최다득점 기록, 올림픽 5회 출전, 아시안게임 금메달 5개 등 믿기지 않은 업적을 쌓은 최고의 스타였다. 지도자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어떻게 하면 키가 클 수 있나요?”,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였다.

윤 감독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핸드볼을 시작한 때는 키가 작은 편이었다. 신나게 운동하고 골고루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핸드볼 선수는 잘 다닌다. 지금도 감사한 건 지금까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두 부상당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꼭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국가대표가 되면 해외여행을 정말 많이 갈 수 있다”는 말에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대화 중간 “코치 선생님 흔대 주세요. 훈련을 많이 시켜요”라는 말이 나오자 함박웃음을 지은 윤 감독은 “삼척초 코치 선생님들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모두 슈팅 스타 실력이 대단하다”고 치켜세웠다.

윤 감독은 서울에서 태백과 삼척으로 1박2일 동안 이어진 꿈나무 교실을 진행했고 다시 돌아갈 길이 멀었지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아이들과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직접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고 한 명 한명 사인과 사진촬영에도 모두 응하며 특별한 추억을 안겼다.

4학년 김성준은 “잊지 못할 날이다. 직접 학교까지 찾아와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정인 5학년 김민성은 “감독님께서 가르쳐주신 것 잊지 않겠다.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학년 김남정은 “꼭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윤 감독은 “모두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보다도 내가 더 행복했다. 빨리 또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삼척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리올림픽위원회, 자국선수 평창올림픽 개인자격 출전 허용

“200여명 선수 참가 허가 받을 것 기대”

러시아가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자국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 허용을 최종 확정했다.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O)는 12일(한국시간) 동계올림픽 대표 선수, 코치, 협회 대표 등이 참석한 ‘올림픽 회의’를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개인 참가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선수위원회’는 전날 ‘평창에 올림픽기를 달고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 싶다’는 요청서를 올림픽 회의에 제출했다. 올림픽 회의는 ‘선수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개인 자격이지만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선수들의 조직적 금지약물 복용 문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아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금지됐다. 그러나 IOC의 초청을 받은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최종 결정 후 마치고 알렉산드르 주코프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초청선수는

IOC가 결정하지만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러시아 내부에서는 지난 5일 IOC결정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수들의 개인 자격 참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논란을 일으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고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날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올림픽스타들과 함께 풀어본 진로 고민

12월 15일까지 ‘...꿈의 멘토링’ 특강 진행

스포츠 733 Dream Center(회장 이기홍)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전국에 있는 체육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꿈의 멘토링’ 진로 특강을 개최 중이다. 11월9일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2월1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는 총 8개 학교, 학생선수 및 학교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목표를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총 3강으로 구성됐다. ▲운동선수 경험 공유 및 진로설계에 대한 목표설정 등을 돕는 멘토특강 ▲10년 후 나의 모습을 담은 타임캡슐 제작을 비롯해 진로고민 등 질의응답, 진로퀴즈 등으로 구성된 토크콘서트 ▲심리안정 기술훈련 및 체육교실 참여수업 등이다. 스포츠스타 멘토링 교육 강사로는 조준호(유도), 이배영(역도), 진종오(사격) 등 국가대표,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배가 참여해 후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12일>						
●2017-2018 정관장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KCC	22	16	6	0.727	0
2	SK	21	15	6	0.714	0.5
3	DB	21	15	6	0.714	0.5
4	전차맨드	21	12	9	0.571	3.5
5	인삼공사	21	11	10	0.524	4.5
6	삼성	21	10	11	0.476	5.5
7	현대모비스	21	10	11	0.476	5.5
8	LG	20	7	13	0.350	8
9	오리온	21	5	16	0.238	10.5
10	KT	21	4	17	0.190	11.5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선수	팀	도움	선수
① 켈리 LG	25.6	① 해인즈 SK	7.1	① 라플리프 삼성	15.0	
② 라플리프 삼성	24.6	② 김시래 LG	5.3	② 켈리 LG	13.4	
③ KCC	24.3	③ 양종근 현대모비스	5.3	③ 해인즈 SK	10.4	
④ 해인즈 SK	24.2	④ 피터슨 인삼공사	4.9	④ 벤슨 DB	10.3	
⑤ 사이먼 인삼공사	23.6	⑤ 김기용 kt	4.9	⑤ 브라운 전차맨드	10.1	
●경기결과						
KCC	84	42	28-22	41	75	삼성
(15승6패)			14-19		(10승11패)	
		42	19-13	34		
SK	94	54	31-16	28	95	DB
(15승6패)			23-12		(15승6패)	
		29	20-27	55		
			9-28			
			11(연장) 12			
NFL <12일>						
●경기결과						
마이애미	27	-	20	뉴잉글랜드		

프로배구 <12일>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삼성화재	15	11	4	30	1369
2	현대캐피탈	14	9	5	28	1203
3	대한항공	15	8	7	24	1423
4	KB손해보험	15	8	7	23	1420
5	한국전력	15	6	9	21	1260
6	우리카드	14	5	9	14	1272
7	OK저축은행	14	4	10	13	1282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①	가스파리니	대한항공	384	①	신영석	현대캐피탈
②	파다르	우리카드	384	②	김규민	삼성화재
③	타이스	삼성화재	366	③	윤봉우	한국전력
④	알렉스	KB손해보험	345	④	박상하	삼성화재
⑤	벨리페	한국전력	311	⑤	김은성	우리카드
●경기결과						
KB손해보험	2	25-20	3	대한항공		
(8승7패)		19-25		(8승7패)		
		21-25				
		25-21				
		9-15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도로공사	13	9	4	29	1160
2	현대건설	12	8	4	24	1040
3	IBK기업은행	13	7	6	20	1140
4	인삼공사	12	5	7	16	993
5	GS칼텍스	12	5	7	11	1010
6	흥국생명	12	3	9	11	907
●경기결과						
IBK기업은행	1	20-25	3	도로공사		
(7승6패)		15-25		(9승4패)		
		25-21				
		19-25				

해외축구 <12일>						
●프리메라리가						
팀	경기	승	점	승	패	무
1	바르셀로나	15	39	12	0	3
2	발렌시아	15	34	10	1	4
3	AT마드리드	15	33	9	0	6
4	레알마드리드	15	31	9	2	4
5	세비아	15	28	9	5	1
6	비야레알	15	21	6	6	3
7	헤타페	15	20	5	5	5
8	레가네스	15	20	6	7	2
9	지로나	15	20	5	5	5
10	레알소시에다드	15	19	5	6	4
11	셀타비고	15	18	5	7	3
12	베티스	15	18	5	7	3
13	에이바르	15	18	5	7	3
14	빌바오	15	17	4	6	5
15	레반테	15	16	3	5	7
16	에스파뇰	15	16	4	7	4
17	데포르티보	15	15	4	8	3
18	알라베스	15	12	4	11	0
19	말라가	15	11	3	10	2
20	라스팔마스	15	10	3	11	1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지로나	1	-	0	에스파뇰		
●세리에A 경기결과						
토리노	3	-	1	라치오		
●아마추어 경기결과 <12일>						
●핸드볼 ●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독일)						
●16강=러시아 36-35 한국(연장)						
●아이스하키 ●2018 IIHF U-20 세계 선수권 디비전2(영국 덤 프리스)						
●A그룹 2차전=한국(2승) 5-4 네덜란드(2패)						
●A그룹 현재 순위=① 영국(6점), ② 일본(5점), ③ 한국(5점)						

경기 예고		
프로농구 <13일>		
●2017-2018 정관장 KBL		
LG	(창원실내)	kt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인삼공사	(안양실내)	오리온
오후7시, iBS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2		
여자프로농구 <13일>		
●2017-2018 신한은행 WKBL		
삼성생명	(용인실내)	KEB하나
오후7시, KBSN스포츠		
프로배구 <13일>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	(안산상록수)	우리카드
오후7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7-2018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	(장충체육관)	인삼공사
오후5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13일>		
●핸드볼 ●제 23회 세계 여자 선수권대회(독일)		